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7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3년 8월 22일, 이의용 의원 등 27명
상정일자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3년 9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건의내용	○ 경춘선의 청량리 연장운행과 망우~청량리 구간의 복선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함.

건설교통위원회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9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8월 22일, 이의용 의원 등 27명

나. 회부일자 : 2013년 8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3년 9월 2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의용 의원)

가. 주문

-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전철노선 중 경춘선만이 유일하게 서울 도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서울과 경기 동북부지역을 오가는 경춘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전철 운행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조속한 경춘선 복선전철의 청량리 연장운행 대책 수립을 건의함.

나. 제안이유

- 경기 동북부지역은 날로 늘어가는 인구증가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레저욕구 충족을 위해 경기 동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경춘선의 시·종착역인 상봉역에서 서울지역 순환 도시철도인 2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번에서 3번까지 환승해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망우~청량리 구간(4.6km)의 선로 복선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반영하여 경춘선 복선전철의 조속한 연장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3. 검토보고의 요지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 : 홍덕표)

※ 검토보고서 전문 ----- [별첨1]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서류

○ 건의안 전문 - [별첨2] 참조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 : 홍덕표

■ 검토보고

가. 건의안의 주요내용

- 경춘선 복선전철의 조속한 연장대책 수립과 망우~천량리 구간(4.6km)의 복선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음.

나. 경춘선 복선전철 현황 및 문제점

- 경춘선 복선전철은 지난 2010년 12월 개통된 구간으로, 상봉~춘천 81.3 Km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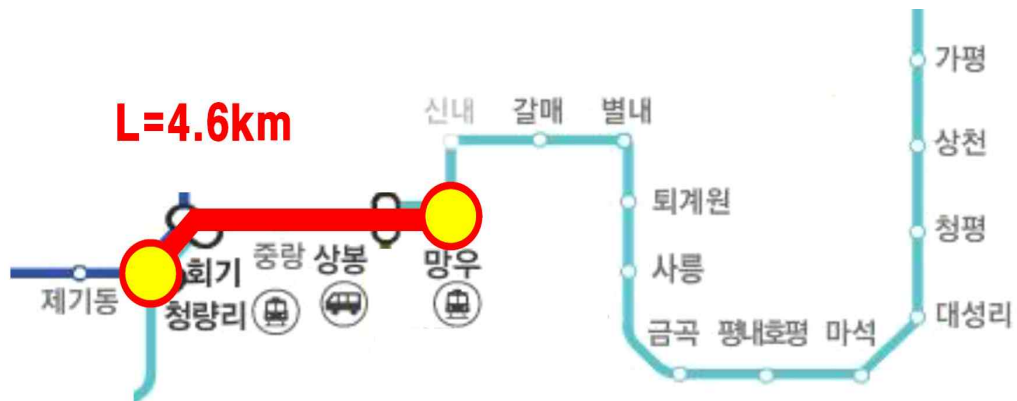


- 평일 50회, 주말·공휴일 42회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약 22분에 이릅니다. 또한 청량리~망우 구간의 용량 부족 및 중앙선 진입시 평면교차 지장 발생으로 상봉역을 시·종착역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경춘선 복선전철은 “상봉역”을 시·종착역으로 하고 있어, 서울도심지 주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환승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임.



- 따라서 본 건의안에서 주문하고 있는 주요 건의 내용은 그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경춘선의 청량리 연장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망우~청량리 구간(4.6km)의 선로 복선화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망우~청량리 구간의 복선화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8,60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본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기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2~2020) 변경안」에 망우~청량리 간 복복선 설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기도의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춘선 연장(상봉~용산) 방안」 연구 용역(‘13.8.26~14.8.20)을 착수하였음.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건의안은 현재 경춘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 특히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 가평군 등 경기 동북부 주민의 장거리 광역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경기 동북부지역은 각종 택지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춘선을 이용하여 서울에 소재한 직장 학교 등의 왕래에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휴양과 레저욕구 충족을 위해 경기 동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12월에 개통한 경춘선 복선전철로 인하여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권 진입이 수월하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춘선의 시·종착역인 상봉역에서 서울 중심지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번에서 3번까지 환승해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경춘선 이용객들의 전철 운행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전철노선 중에서 경춘선만이 유일하게 2호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춘선을 이용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동북부 지역주민은 환승으로 인한 불편과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서울도심에서 경춘선 주변의 휴양지,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도 접근성을 떨어뜨려 경기 동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경춘선 복선전철의 청량리 연장운행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경춘선의 청량리 연장운행을 위해서 중앙선 선로를 활용

할 때에는 중앙선의 선로용량 한계로 7분 정도의 신호대기 지체시간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경춘선의 청량리 연장운행을 위해서는 망우~청량리구간(4.6km)의 선로 복선화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 동안 가평군의회, 춘천시의회,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춘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경춘선 복선전철의 조속한 연장대책을 수립하여 경춘선 이용객들의 불편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망우~청량리구간(4.6km)의 선로 복선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경춘선 개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통망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9. .

경기도의회 의원일동